

‘문화나눔’ 지역격차 심각… 광주·전남 하위권 그쳐

최근 5년간 기부받은 공연티켓 20만장 못 쓰고 버려

조계원 “총체적 난맥상… 전면적인 쇄신 필요하다”

나눔티켓사업을 위해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기부받은 공연티켓 63% 이상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나눔티켓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기부받은 무료티켓과 할인티켓 무료티켓을 문화누리카드 회원 문화누리카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제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을)이 2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나눔티켓 기부 및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나눔티켓사업으로 기부받은 공연티켓 32만430장 가운데 36.6%인 11만7460장만이 문화향유에 활용되고 나머지 20만 2970장(63.3%)은 사장됐다.

기부티켓 10장 가운데 6장은 못 쓰고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별 나눔티켓 기부 수를 살펴보면, 충북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전남 420건, 세종 4100건을 기록해 큰 차를 두드렸다. 전남의 경우 2021년~2025년 8월까지 420장의 기부가 이뤄졌지만, 지역 내 실제 이용매수는 208건에 그쳐 절반도 안되는

(49.5%) 이용률을 보였다.

문화예술 인프라가 잘 구축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눔티켓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흥보 부족도 한몫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나눔티켓 흥보 집행액을 살펴보면, 지난 2023년까지는 집행액이 꾸준히 늘었으나 지난 해부터 급격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조계원 의원은 “기부된 티켓 중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저조한 것이 드러난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비효율을 넘어, 문화예술계의 소중한 기부와 나눔의 뜻을 퇴색시키는 결과”라고 말하며, “지역의 문화 인프라 부족 문제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제도의 주 이용 대상인 저소득층에게 흥보도 잘 안 됐고, 티켓을 받았지만 이용률이 낮은, 총체적 난맥상”이라며 “나눔티켓 사업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일 전남 동부지역본부 이순신강당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도을 김용옥 명사 및 주요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 국제적 시각서 재조명

한·중 학자 국제학술대회…광주·전남 항일활동 중심 논의 “동학정신은 민주화 뿐”…김영록 지사 기념식 추진 의지

전남도가 동학농민혁명과 영호도회소의 역사적 의미를 국제적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했다.

전남도는 22일 동부지역본부 이순신강당에서 ‘동학농민혁명과 영호도회소 활동 재조명’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항일운동의 역사적 맥력을 심층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한 국학호남진흥원이 주관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한국과 중국의 학계 전문가, 동학 관련 단체 대표자 등 국내외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광주·전남 항일활동 중심’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동학정신의 세계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기조강연에서는 도을 김용옥 명사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조선 민중의 항일정신’을 주제로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위신광(魏晨光) 산동대학교 교수의 ‘청일전쟁 초기 일본군 작전에 미친 동학군과 민중의 움직임’, 김명재 영호도회소 전시부 경연, 청소년들의 열정이 빛난 남도 미래세포 경연대회, 스페인 출신 그린 미술관 1스타 비리 세프(Evira Fernandez Garcia)의 월드미식 파티, 전통주, 와인페어링 등 남도의 맛과 이야기가 가득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또 ‘남도 대표맛집 미식로드’는 흥어, 민어, 낙지, 쌈동어, 꼬막, 무화과 등 남도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다채로운 메뉴로 남도미식의 진수를 선보이며, 행

소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의 ‘동학농민혁명과 영호도회소 농민군 활동’, 박해현 초당대학교 교수의 ‘제2차 동학농민혁명과 항일의병’, 박용규 고려대학교 교수의 ‘동학농민혁명 독립운동 여부’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양식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임송분 남도학연구원 이사, 조재곤 서강대 연구교수, 신민호 전남도의원, 한규무 광주대 교수 등이 참여해 동학농민혁명의 위상 제고와 영호도회소 연구 활성화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민중의 의료운 혁명이

었다”며 “이 정신은 3·1운동, 항일 의병 활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우리 민족사의 근본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도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국가기념식 전남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항일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순천을 중심으로 한 ‘영호도회소’의 항일 활동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기존의 전국 단위 동학농민군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전남 지역의 혁명사적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밝혀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미식인 주간’ 스타세프 총출동

오세득·임희원·니시무라 다카히토 등 대미 장식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마지막주 ‘미식인 주간’을 맞아 오세득, 임희원, 니시무라 다카히토 등 스타세프가 총출동, 관람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남도의 진짜 미식축제를 펼쳤다.

개막 이후 매주 다채로운 주제를 통해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한 아세안 패밀리 전시부 경연, 청소년들의 열정이 빛난 남도 미래세포 경연대회, 스페인 출신 그린 미술관 1스타 비리 세프(Evira Fernandez Garcia)의 월드미식 파티, 전통주, 와인페어링 등 남도의 맛과 이야기가 가득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또 ‘남도 대표맛집 미식로드’는 흥어, 민어, 낙지, 쌈동어, 꼬막, 무화과 등 남도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다채로운 메뉴로 남도미식의 진수를 선보이며, 행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에 마련된 K-푸드 산업관에 관람객이 출을 서고 있다.

밥을 선보이며, 각 지역의 재료와 개성을 살린 김밥이 한자리에 모여 남도만의 풍부한 맛과 아이디어를 담은 요리로 관람객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홍양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이번 마지막 주는 그동안의 박람회를 접악한 미식의 절정이자, 남도 식재료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직접 체험

할 소중한 기회다”며 “남도의 풍미와 이 야기를 오감으로 느낄 이번 주간에 많은 관람객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남도의 식문화와 K-푸드 산업의 미래를 제시한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전국 최다’

농식품부 공모 7개소 선정…컨설팅 등 선제적 대응 성과

전남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공모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생산자단체는 나주 뿌리농축산

영농조합법인, 해남 정운영농조합법인, 무안 농비름(유), 영광 지내들영농조합

법인, 진도 진도큰집농업회사법인, 신안

천사아그로테크영농조합법인과 쌀맛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농식품부가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안정적 생산기반 구

축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품목별 일정비율 이상의 친환경인증 면적을 확보한 생산자단체다.

이번 2026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공모 결과 전국 15개소 가운데 전남이 7

개소가 선정돼 전국 사업비 170억 원의

49%인 83억 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을 집적지구로 지정해 적극 지원하며 자체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

로 공모에 대비했다. 그 결과 2025년까지 200개소가 선정되는 폐거를 이뤘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시, ‘2045 지속가능도시 비전’ 제시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27일 창립 30주년 기념식

광주시가 산업·교육·청년·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광주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청원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2045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비전’을 발표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광주가 환경보전, 사회적 포용, 경제적 번영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행

전환점으로,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관광 기관 및 기업 관계자, 마을공동체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30년간의 활동을 담은 영상과 현재 광주의 지속가능성을 되짚는 시민영상, 미래 세대가 꿈꾸는 광주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통해 의미를 되새긴다.

광주시는 이어 기후위기 대응·사회적 포용·경제균형발전 등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 비전’을 발표한다. 영동민 기자